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서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김동일*

* 서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상담교수,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1.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교육적 차별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1995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제도를 도입하였다. 서울대학교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국립 대학교로는 최초로 2002년 본 전형제도를 도입하였다. 시행 첫해에 7명의 중증** 장애학생이 입학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현재 총 32명의 특별전형 장애학생이 재학중에 있다.

** 자체 장애와 시각 장애는 1~2급, 청각 장애는 2~3급을 말함.

특별전형 장애학생 현황

* 단위: 명

구분	자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소계
	남	여	남	여	남	여	
2002	2	•	•	4	1	•	7
2003	4	1	1	•	1	•	7
2004	3	4	1	1	1	•	10
2005	3	1	1	1	2	•	8
계	12	6	3	6	5	•	20
	18		9		5		32

물론 그 이전부터 관악캠퍼스에는 장애학생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장애 정도(severity)가 심하지 않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해서 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needs)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였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이 실시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중증 장애학생, 특히 시·청각 감각 장애학생이 증가하면서 개인적 노력이나 가족의 도움만으로는 대학에서 수학하기 정말 힘든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대학은 이들의 잠재력 능력을 계발하고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해 체계적인 장애학생 교육·학습 지원을 제공할 장애학생지원센터를 2003년 6월 본부 학생처 산하에 설립하였다.

대학본부 1층(우체국 옆)에 위치한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현재 총 8명의 지원 인력이 장애학생의 교육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 교육 지원에 관한 자문과 장애학생 상담을 맡고 있는 상담교수를 비롯하여, 전문위원 1명, 학사조교 1명, 조교 2명, 차량 기사 1명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2명이 일년 365일 장애학생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학습 지원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점역 작업을 할 수 있는 점자 프린터와 음성 지원 및 화면 확대 컴퓨터, 독서 확대기, 전동 휠체어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창과 자동문이 상징하듯이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인은 물론 장애인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궁금증이나 의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환영하는 열린 공간이다.

2. 장애학생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우리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 지원의 기본 원칙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장애 유형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의 개별적 요구에 기초해서 지원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합리적 수준에서의 지원이다.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이유는 장애인이어서가 아니라 장애(disability)로 인해 발생한 교육적 장벽을 낮추거나 제거하여 교육의 수

월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장애학생지원센터와 대학 본부에서는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지원, 편의시설 및 이동 지원, 대학생 활 지원 그리고 교육 및 연수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수·학습 지원

* sticker⁰에는 장애학생이 사용하는 학기·요일·시간이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시간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다.

구분	지원 내용	비고
교육과정 조정	청각 장애학생들을 위한 '대학영어' 강의 개설: 1대 1 수준의 교수, 별도 소프트웨어 지원 등	교무처 (기초교육원)
강의 및 강의실 접근	수강 신청 우선권: 원하는 모든 교과목 강의실 접근이 곤란한 경우 강의실 변경 장애학생 지정석용 스티커 배부 [*] 지체장애(뇌성마비) 학생용 책상 제공: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높낮이 조절 책상	교무처
교수· 학습 지원	교수 학습 지원 권고 안내문(Accommodation Letter) 발송 제도: 장애학생의 개별적 요구에 따라 개강 전에 교과 담당교수에게 지원 권고문 발송 장애학생 학습 지원 도우미 제공: 대필·녹취· 대면 낭독·워드프로세서 등 강의 내용 대필 지원 및 녹취록 제공 학습 기자재 무상 대여: 노트북 컴퓨터·녹음기 등 접자 교재 제공	장애학생 지원센터

현재 장애학생에게 제공하고 있는 교수·학습 지원 사항은 대략 앞에서 제시한 표의 내용과 같다. 이 중에서 교수학습 지원 권고 안내문 (Accommodation Letter)은 여타 대학이 전체 교수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대학에서는 장애학생의 요구 사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담당교수에게 각기 다른 내용의 형태로 발송되고 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은 청각 장애학생을 위해서 별도 '대학영어' 과목을 개설한다는 것 역시 우리 대학만의 특성화된 지원 내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대필 지원, 즉 문자 통역의 지원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2006학년도에 전문 속기사를 채용할 것이라는 사실로 미루어보더라도 장애학생의 교육 지원에 있어서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2) 편의시설 및 이동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은 승강기, 경사로, 단차, 장애인 전용 주차장, 장애인 공용 화장실 등을 말한다. 우리 대학은 지형적 특성과 오래된 건물로 인해 장애인 시설 접근이 상당히 불편하다. 이러한 불편을 제거하고자 편의시설에 관한 장애학생의 요구사항 및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점진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장애인 편의시설은 엄청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의실 접근성이 100%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학기 강의실에 대한 접근 가능 여부 및 편의시설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강의실 접근성 현황 및 도면을 수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학내에서의 이동 지원을 위해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1대 운영하고 있다. 차량 운행 시간 및 코스는 장애학생의 요청 사항을 기초로 해서 요일별로 결정된다. 장애학생 지원 차량에는 공익근무요원이 함께 배치되어, 장애학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의 안전 이동을 돕고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동 보조 도우미나 전동 휠체어 무상 대여를 통해 자체 장애학생의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3) 대학생활 지원

우리 대학은 장애학생에게 기숙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가족생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이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장애학생 개별 상담 또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장애학생의 상담 요구를 해소하고 있다. 이외에 금년부터

는 특수교육전공 대학원생이 일종의 장애학생의 Mentor 역할을 하는 장애학생 mentoring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4) 교육·연수

장애인에 대한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다.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이를 위해 매 학기 신입 교수를 대상으로 합리적 수준의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직원에 대해서도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장애학생의 도움 미를 맡게 된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해 이해 제고를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장애 체험과 장애 이해 중심의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장애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물리적·제도적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학생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장애학생의 요구 중에는 어느 한 기관이나 대학 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상당수 있다. 이런 여건에서 장애 학생의 교육 환경이 만족스러울 만한 수준으로 개선되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갈등과 진통이 따를 것이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장애학생을 강의실에서 직접 만나는 우리 대학 교수님의 관심과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다.

3. 장애학생, 이런 수업을 원한다!

교육은 교학상장이다. 즉 교육은 교수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장애학생이 교수·학습의 상호작용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교육적 요구가 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애에 대한 이해 없이는 늘 일관되게 대화하기가 곤란하다. 사실, 지체 장애는 운동 기능상에, 청각장애는 듣기에, 시각장애는 보는 것에 제한 적이라는 상식적 개념만 갖고는 장애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특히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수업 활동과 장애가 결합되면 수업 맥락에 따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불쑥불쑥 발생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장애학생들은 자신의 요구를 교수님이 이해하실 수 있게 먼저 장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셨으면 한다. 장애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 없이 교육적 지원을 기대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1) 지체 장애학생의 요구

지체 장애학생은 강의실 접근과 이동 문제만 해결되면 별다른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워드프로세싱이 느리고 필기가 힘들어 과제 작성이나 지필 시험에 불리하다. 팀 활동에서의 역할 수행도 제한적일 수 있다. 관람·답사·설기·실습 등의 활동적인 수업도 충실히하기 어려울 수 있다. 조음기관과 운동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의사소통 표현이 부정 확할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신체 움직임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지체 장애학생이 교수에 대해 요구하는 바는 ① 필기 곤란으로 인한 강의록 사전 제공, ② 과제 제출 기한의 유통성 제공, ③ 시험 시간 연장, ④ 대안적 과제 제시, ⑤ 평가 방법의 조정(예: 필기시험→구술시험), ⑥ 토론·발표 수업에 대한 배려 등이 있다.

2) 청각 장애학생의 요구

청각 장애학생은 잔존 청력과 상대방의 입 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한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작거나 정면을 쳐다보지 못하면 대화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강의 내용을 직접 듣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강의 내용 이해에 대한 한계

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이 비효율적이다. 이로 인해 청각 장애학생은 교수에 대해 ① 시각적 자료의 적극적인 활용, ② 강의 중 마이크 또는 무선 송신기 사용, ③ 청각 장애학생의 정면을 바라보며 강의 진행, ④ 예습을 위해 강의 자료 사전 제공, ⑤ 녹취록 제작을 위한 강의 녹음 허용, ⑥ 토론 발표에 대한 배려, ⑦ 대안적 과제의 제시(예: 음악 감상→미술 감상), ⑧ 중요 사항에 대한 판서 또는 이메일 공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3) 시각 장애학생의 요구

시각장애인이라고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보인다고 해서 비시각장애인(정안인)이 안경을 쓰면 보이는 것만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약시와 같이 어느 정도 시력이 있는 경우라면 확대 매체나 음성을 통해서, 전혀 볼 수 없는(전맹)의 경우는 점자나 음성을 통해 학습을 한다. 동시적인 정보 처리가 가능한 시각을 이용하지 못하고 측지해서 점자를 읽거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순차적 정보 처리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이 역시 효율성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한 입장이다. 이러한 불리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① 청각적 자료의 적극적인 활용, ② 확대 인쇄물 제공, ③ 음성 청취를 위한 교수·학습 자료의 이메일 송부, ④ 점자 교재 제작을 위한 텍스트 파일 제공, ⑤ 점자 문제지 제작을 위한 사전 문제 제출, ⑥ 대안적 과제의 제시(예: 미술 감상→음악 감상), ⑦ 평가 방법의 조정(예: 구술시험, 노트북 컴퓨터 사용 인정 등), ⑧ 중요 사항에 대한 개별 안내(전화) 또는 이메일 공지 등의 요구가 지원되어야 한다.

이상의 요구 사항은 대부분 학기 초에 발송되는 교수 학습 지원 권고 안내문(Accommodation Letter)을 통해서 또는 장애학생이 직접 담당 교수를 찾아가 이야기함으로써 교수에게 전달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장애학생의 요구가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수용되는 것이다. 이해도 되고 지

원 의사가 있다 해도 적절한 방법을 모르거나 주어진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혹은 비장애학생과의 형평성, 즉 역차별의 문제로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에 주저할 수도 있다. 또는 반대로 해결 방법은 명확한데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 이해 부족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때 주저하지 말고 장애학생지원센터나 상담교수에게 자문을 요청하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장애학생지원센터는 ‘개별 장애에 따른 교육적 요구’를 지원하는 곳이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곳이 아니라 장애로 인한 장벽을 제거하고 낮추는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적절한 지원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리 골절상 등으로 인해 이동에 장애가 생긴 학생들에게 장애학생 이동 지원 차량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장애인보다는 장애인이 갖고 있는 능력, 적성, 그리고 잠재력을 계발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데로 옮겨져야 한다. 이미 우리 대학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구성원으로 넘쳐나고 있다. 장애인도 역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 대학의 구성원이다. 따라서 교육적 책무성에서나 통합 사회의 가치 측면에서나 장애인의 차별은 지양되어야 하며 다양한 교육적 요구 중 하나로서 장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차이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제는 이러한 편견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합리적 수준이란 장애학생의 요구, 우리 대학의 여건과 구성원 간의 합의에 기초해야 함을 의미한다. 장애인 전용, 장애인 공용 그리고 장애인 우선의 개념적 정립도 중요하고, 역차별에 대한 고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대학의

인프라, 즉 합리적인 지원 체계, 편의시설, 전문 인력, 학습 기자재 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효율적이며 장애에 대해 차별적인 것이 아닌지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다. 지금까지 합의된 사항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장애인에 대한 교수-학습 지원 수준이 향상되면 그만큼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는 대학의 교육 환경을 침해하는 부담 요인이 아니라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측면으로써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5